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새고려신문</p>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11월 9일(금) ..(음력 10월 2일).. Пятница 9 ноября 2018 г. № 44(11681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개교 27주년 기념

지난 5일(일)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아.위로호와)가 개교 27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입학식과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에트노스>의 우수 학생 시상식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올해 교육과 공연활동에서 공적을 세운 학생 35명에게 포상했다.

또한 이날 러시아민속과와 한민족예술과 1학년생 50명이 입학 서약을 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공연으로 이어졌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는 1991년에 개교했으며, <에트노스>는 선도보충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나탈리아 에이 지노와가 설립하여 러시아민속과 한민족 예술을 가르치고 있다. <에트노스>의 예술단들은 전국과 국제 대회에서 여러번 우승했고 티비방송 쇼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에트노스>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다수 공연, 연수를 한 바 있다.

(사진: <에트노스>학교 제공)

단신

극동연방관구에 부랴티아와 자바이칼 지역 편입

지난 3일(토) 부랴티아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경을 극동연방관구로 편입시키는 법령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렇게 하여 현재 극동연방구는 부랴티아공화국, 사하공화국(야쿠치아), 자바이칼변강, 캅차트카, 프리모리예, 추코트카, 하바롭스크 변경, 사할린주, 아무르주, 마가단주와 유대인 자치구 등 11개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극동 핵타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도개발지역 사업을 펼쳐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두 지역을 극동관구로 편입시켰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연송어 획득량 12만 톤 정도

사할린주수산청에 전한 바에 따르면 11월6일 현재 연송어 총 어획량이 11만9960톤에 달했다. 송어는 8만2877,6톤, 연어는 3만5859,8톤, 고급 연송어종 네르카는 782,3톤, 키주츠는 446톤을 어획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을 위한 다기능지원센터 개설

지난 7일(수) 볼니츠나야 거리에 위치한 재활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기능지원센터 개막식이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이 다기능지원센터는 사회보호부와 전략주도청이 설립했다. 사할린 다기능지원센터는 전 러시아에서 5번째로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전문가 상담, 연금신청,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침대는 최대 1년,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의 재활기구는 3개월간도 대여가 가능하다.

"다기능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재활센터는 더욱더 많은 기능을 가진 기관이 되었다"고 사할린주 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이 강조했다. 이곳에는 도서관, 관리소, 컴퓨터실이 배치돼 있다. 다양한 전문의들이 활동하고 최신 장비도 사용하고 있다. 재활센터가 설립된 지 1년 동안 1000여 명이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사, 허진원 한국 작가와 만남 행사 개최

올 11월 12일(월) 18시 새고려신문사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주한인협회 후원 하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허진원 한국 극작가와 만남의 자리가 준비된다.

2018년 9월 1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으로 사할린에 파견된 허진원 작가는 사할린 사람들과 삶과 창작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새 주지사, 언제 부임될까?

2018년 9월 26일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명으로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가 연해주 지사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그후로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 새 주지사 권한 대행은 임명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후보를 검토했으나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지도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임되지 못한 것은 첫 사례로 현재 주지사 대행의 부재로 이미 여러 지방자치체 시장 선거도 취소되었다. 지방자치체 시장은 주두마 의원들이 선정한 위원 3명과 주지사가 선정한 위원 3명이 선출하게 된다.

현재 주예산도 주두마에 제출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주지사 대행의 부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대통령 관리실 직원들이 사할린을 다녀가 주내 사회경제상황, 사할린 주민들이 누구를 주지사 권한 대행으로 보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 제1부지사 안톤 율로쉬코 행정실장은 코제마코 주지사를 따라 현재 그의 연해주 주지사 선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사할린주 정관에 따라 제1부지사가 주지사 대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권한을 제1행정부실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1행정부실장은 현재 이성철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지사 권한 대행을 사할린주 정부 웨라 웨트비나 수상이 수행하고 있다. (본사기자)

사할린주 인구 지속적 감소

올해 1월-9월간 사할린주 인구수에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 사할린주 내 신분등록소에는 4493명의 출생아가 등록되었는데 그중 쌍둥이와 세쌍둥이는 67명이고 사망자 수는 4630명이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137명으로 2017년 같은 시기는 285명이었다. 출생율이 사망률보다 높은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서 나타났다.

주내에 혼인 등록은 2780건, 이혼은 2047건으로 등록됐는데 작년 같은 시기에는 혼인 3087건, 이혼은 2062건이 등록되었다.

사할린주 이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1-9월간 사할린과 쿠릴지역에는 16798명이 체류했는데 그중 57,8%는 상주할 목적이었다. 사할린주로부터 17421명이 이주해갔다. 그중 76,2%는 거주등록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사할린주 내에서 주거지 이전은 6689명으로 기록되었고 사할린으로 이주민의 감소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알립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11월 23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본사 편집부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23 ноября 2018 г.

학생 하계휴양사업 결과 심의

2018년 여름방학 때 사할린주 학생들의 휴양 조성에 주 예산에서 7억930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고 작년에는 이런 목적으로 6억 1450만 루블리가 지출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이 주재한 회의에서 여름방학 휴양 사업 결과를 사할린주교육부 나탈리아 무라쇼와 장관이 발표했다.

학생들은 남부 사할린에 위치한 <차이카>, <레스노예 오제로>, <유빌레이너>, <사할린스키 아르테크>, <유니 펠레즈노도로즈니크>, <위스토크> 등 일정 야영지에서 휴양할 수 있었는데 입소권은 3만7342 루블리였고 이 비용의 15%만 학생들의 부모가 부담했다.

여름방학 때 학교 야영지로 170곳, 노동휴식 야영지 45곳, 야외캠프장 24곳, 전문야영지 118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그중 절반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다. 약 1500명의 사할린 및 쿠릴 학생들은 국내 및 국제 청소년 센터인 <오케안>, <오를료노크>, <스메나>, <아르테크>, 그리고 크림 야영지에서 휴식할 수 있었다.

올해 여름 캠페인은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인격의 긍정적인 품성을 함양하고 예술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많은 산행과 그룹활동, 일하기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5500명의 학생들은 여름에 아르바이트 하길 원했다. 올해는 2017년보다 학생 2500명이 더 많은 49152명이 다양한 방식의 휴양과 근로로 방학을 보냈다.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이들 98% (17000명)가 흥미로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 북방소수민족 계속 지원

사할린에는 해마다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지원으로 약 3000만 루블리를 지급했다. <사할린주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의 안정적 발전>프로그램은 제반시설개발, 전통산업기관의 현대화, 교육, 문화, 보건 분야와 사회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부족 공동체에는 전통 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600여만 루블리를 지급했고 300만 루블리는 원주민 전통 거주지에 제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급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교 학생들의 급식, 연금자와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주택 수리 등으로 지원했다.

550여만 루블리는 원주민 고유문화 유지발전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전해졌다.

올해 대학과 전문학교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학생 66명이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교육기관까지의 교통비, 기숙사 비용, 교육비의 일부이다. 이 학생들은 우파, 샤프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이들은 주택구입에 있어서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 삼보 창설 8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로

삼보 창설 80주년을 맞이해 코르사코프에서 개최되는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과 사할린의 선수들 400명 이상이 만나게 된다.

월드 챔피언 7관왕, 유럽 챔피언 5관왕, 월드컵대회에서 3번 우승한 선수로 활약했던 라이스 라흐마투ллин 러시아 공훈스포츠 장인이 귀빈으로 초대되었다.

전국 삼보심판위원장 겸 국제심판위원인 보리스 소와(라잔)는 대회 주심을 맡게 되었다.

대회는 11월 16~17일 <플라그만> 종합단지(페즈코 거리, 1/1번지) 무술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개막은 10:00시라고 코르사코프 행정부 측이 전했다.

80-летие самбо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ят масштабным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Более 4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Южной Кореи встретятся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Корсакове, приуроченных к 80-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мбо.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нет семи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пяти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Европы, трехкратный обладатель кубка мира, заслуженный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Раис Рахматуллин.

Главным судь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выступ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й коллегии судей по самбо, судь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Борис Сова (Рязан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16 и 17 ноября в зале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комплекса "Флагман" (улица Федько, 1/1),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04-15.

Начало соревнований в 10.00, сообщает корсако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돌린스크구역 소콜마을 유치원에 아버지회 탄생

소콜마을의 <로신카> 유치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버지회 활동을 시작한다.

여기에 9가정의 적극적 남성인 가장들이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강화와 가정의 가치 보호에 따른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알찬 문제들을 결정할 계획이다. 빅토리아 키셀로와 유치

원 원장이 지적하는 바는 유치원과 가정이 협력하여 자녀의 교육과 발달에 책임을 분담하면서 아동들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활동을 통해서만 아동의 이해와 아동의 개인적 문제 해결에 서로에게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빅토리아 키셀로와 원장은 "유치원은 열린 체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교사의 실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기의 목적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로신카> 유치원에는 200여 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중 80%가 양부모 슬하의 가정이란 점에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36%는 두세 명 이상의 자녀들을 둔 가정이고 모든 원아들의 아버지들은 일을 하고 있고 그중 25%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우리 유치원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은 훌륭한 학부모들을 두고 있다. 아버지들은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박람회, 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로신카> 유치원에서는 학부모회가 활동을 하는 가운데 회원들은 유치원의 주요 활동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들은 원아들의 간식과 일상생활을 비롯해 유치원 단체생활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어딘가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보게 되면 즉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Совет отцов появится в детском саду долинского села Сокол

В соколовском детском саду "Росинк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вой совет отцов. В него войдут девять глав семей, активные мужчины, которые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решением важны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вопросов по защит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и усилению роли отца в семье и обществе.

Как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им садом Виктория Кисло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емьи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должно работать в интересах ребенка, разделя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его воспит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И неоценимую помощь друг другу в понимании ребенка, в решении его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можно вы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пр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 Детский сад должен стать открытой системой, — говорит Виктория Кислова. — Потому что, какой бы ни была высокая квалификация педагогов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достигнуть необход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воспитании ребенка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поддержки родителей. Нашу "Росинку" посещают около 200 ребятишек, из них 80 процентов живут в полных семьях —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показатель. 36 процентов составляют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воспитываются два-три и более детей. Все папы работающие, 25 процентов имею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У нас очень хороши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родители, папы — активные участники выставок, ярмарок,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осинке" действует родительский комитет, члены родительского комитета находятся в гуще событий детского сада. Они знают все о жизн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включая бытовые условия и питание детей. Если видят где-то недоработки или нарушения, сразу обращаются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их устранению.

사할린 선도개발구역과 석유·가스 산업을 위한 제 2회 로봇공학 선수권 대회 개최

제2회 로봇공학 선수권 대회가 12월 2일 사할린주에서 개최된다.

<로보페스트>와 <전국 로봇공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대회의 사할린주 지역 선발 단계를 조직해온 <진취적 교육>학습센터가 이번 행사를 주최한다.

이리나 볼로쉬나 학습센터장은 "작년에 조성된 제 1회 선수권 대회는 사할린의 학생들만 아니라 타지방의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로봇공학 선수권 대회에는 100명 이상의 초보 로봇공학도들이 모였다. 올해는 작년의 규정과 범규를 약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례 선수권 대회는 <사할린주의 안정적 성장>이란 공동의 주제로 개최된다. 경기의 일환으로 1학년생 - 11학년생까지 3가지 주요 부문에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사할린 관광 (저학년생, 1-4학년);

농축산업 (중등부, 5-8학년);

석유 및 가스 산업 (고등부, 9-11학년).

각 연령별 문제와 기본 취지는 사할린주의 최우선 과제인 <고르니이 보즈두호> 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선도개발구역과 석유가스 산업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로봇공학 분야의 연방심사위원인 빅토르 포포프는 "연방 차원의 대회 참가와 연방 심사위원들의 작업과 지역 대회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대단히 크다. 이는 꼭 필요한 경험이며, 확실히 수준 높은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8면에 계속)

문화생활

허남영 작가, 사할린에서 새 출판물 소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의 허남영(허 로만) 작가·시인이 올 초에 모스크바에서 2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3월에 모스크바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권은 <노타 라(음표 라)>책인데 시, 에세이, 단편소설로 구성되었고 <밝은 밤>이란 2권은 조선 시조 번역본으로 구성돼 있다.

올 초에 본지에 인터뷰를 한 허 로만 작가는 차후 사할린 독자들에게도 새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남영 작가는 사할린에서 출판기념회를 자신의 고향인 토마리부터 시작하겠다고 얼마 전 본사로 연락했다. 그는 11월 15일(목)에는 동향인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11월 23일은 사할린 동포시인이 홀스크 독자들과 만남예정이고 12월 7일(금) 18시30분에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허남영 시인은 조선시조 번역본을 동포들에게 따로 소개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배순신 기자)

사흐콤, 20주년 맞이

지난 4일(토) 사할린의 가장 큰 웹포털 사흐콤(Sakh.com)이 20주년을 맞이했다. 처음 개설 당시 개인광고만 실었던 인터넷 사이트에는 10-20명 정도 방문했었다. 지금에 이르러 사흐콤은 독립적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통신사로, 포럼(채팅)으로 명성을 높이며 많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행사 소개, 맛집 소개, 나이트클럽 소개, 활동교실 소개 등, 온라인 영화·공연·축제 등 입장권 구매 등, 수많은 레스토랑과 카페의 음식 온라인 구매, 일자리 찾기, 매매 등등)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하루 포털 방문객은 13여 만명(사할린 인구수는 약 49만명)에 이른다. 사흐콤 포털에는 그동안 38만 8103명이 등록했다고 사흐콤이 전했다.

사흐콤을 시작할 때는 직원 겸, 사장 겸 이용남(이 알베르트)뿐이었으나 현재 직원 57명(평균 연령 32세)이다. 그동안 직원들은 수준 높은 전문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사흐콤 통신사 기자들은 설립 20주년을 이웃인 주 아동병원에서 맞이했다. 이들은 어린 환자들을 위해 장난감과 문구를 넣어 포장한 <용감의 가방> 15개를 준비해 선사했다.

그리고 사흐콤통신사는 사흐콤 포털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소개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들, 국민 단결의 날 행사들에 참가



지난 4일 전국에서 러시아 단결의 날을 기념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시민들의 행진이 있었는데 이에 많은 민족들이 참여했다. 물론 주한인협회를 비롯한 동포 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수많은 민족행사가 주 내 여러 도시들에서 진행됐는데 돌린스크행사와 아나와 명절행사에는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그룹(지도: 신 인가, 송 알베르트),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공연했고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홈스크 등지에서 한인 동포들이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대표단들이 홈스크 봉사자들과 함께 미주호(포자르스코예) 27일 한인피살자 추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현장에서 벌초와 청소를 했다고 전했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사할린 한인역사를 잊지 말고 매해 이 추념비를 찾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 추념비의 현장 관리는 홈스크한인회와 홈스크 시청이 하고 있으며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쉼터를 만들고 있다. 올해 이곳에 의자를 배치하고 탁자는 다음 해에 설치하겠다고 주한인회 측이 전했다.

(글: 본사기자 / 사진: 이에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돌린스크한인회 제공)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동포 초청해 한민족 자긍심 높인다

러시아·CIS 지역 독립운동가 및 강제이주·징용자 후손, 유공동포 등 고려인 동포 44명 초청

6일(화)부터 4일간 한국의 발전상, 역사·문화 체험 통해 한민족 동질성 회복 및 자긍심 고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동포 44명을 초청해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동포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유공동포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상과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과 고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초청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등 6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중 모국방문이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이주·징용자 후손, 유공동포로 구성됐다.

- 특히, 이 중에는 독립유공자 구철성 선생의 손자 황 박체슬라브와 독립운동가 한성길 선생의 외손녀 정 스페틀라나, 독립운동가 황운정 선생의 외손자 리 베체슬라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6일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투어를 시작으로 한국 민속촌, 독립기념관, 임진각 일대, 경복궁, 동대문 투어 등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한국의 문화유산과 지역별 역사·

문화 체험에 나선다. 9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한 후 환송 오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린 자랑스러운 우리 50만 고려인 동포들의 숙원인 모국방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현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전호의 계속)

4. 역사 속의 언어

'한글, 우리말, 조선어, 고려인, 조선족, 재일동포들, 새고려신문, 우리말 방송국'이란 단어 속에 역사가 녹아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우선 언어 문제로서, '한글'이란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국어이고, '조선어'는 북한 측에서 사용하는 국어이고, '우리말'이란 용어는 양측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서 사할린에서는 '우리말 방송국'이 있고, '고려인'이란 용어도 '한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고려인'이라 칭하기도 하고, '새고려신문'이란 이름도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동포들로 옛날 조선의 이름 그대로 '조선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재일동포들' 중에는 여전히 '조선적'이란 국적 아닌 국적을 사용하는 동포들도 있다. 그들은 남한도 아닌 북한도 아닌 과거의 분단되기 전의 조선의 통일된 국가를 열망하는 소망을 지닌 채 여전히 무국적자로 지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을 보면서 재외동포들은 여전히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언제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참으로 무거운 역사의 숙제를 안고 산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할린에는 우리말/우리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말 방송국' '새고려신문'이란 두 매체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린다. 두 매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단의 위험을 몇 번인가 고비를 넘기면서도 우리말, 우리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 민간인 단체들이 이 두 매체가 잘 버티어 갈 수 있도록 후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한국 정부가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란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매체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해본다.

5. 이제부터는 앞으로 가자

일본과의 사이는 어쩌면 영원히 아물 수 없는 문제인가?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관람식에 일본이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오려고 하자 한국 측의 저항에 부딪혀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독일의 나치시대에 대한 반성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읽을까? 일본이 독일과 같은 전향적인 자세가 안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자세에 대한 요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 역사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세계적으로 항상 뒤편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은 그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책임을 그들의 것으로 남겨두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여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역사는 과거를 잊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여도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식은 시키되, 우리 스스로는 자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어느 민족보다도 강건하다는 자부심을 보여줄 전환의 시점에 왔다고 본다. 스스로의 힘으로 보란 듯이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변화의 시각 위에 서있는 것이다. 남북의 정상이 백두산에서 마주 손을 잡고 웃는 그 감동적인 역사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남북의 정상은 8천여만 겨레와 재외동포들의 염원과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연재를 끝맺음하고자 한다. 비록 몸은 한국에 있으나, 사할린 한인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러시아 고려인들도 한국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사할린'이라는 섬나라

사할린이라는 섬나라
까마득히 7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인연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으로 변하고
다시 남북한 분단의 국가로 변한 세월

그 세월 속에 강제징용이라는
시퍼런 파도는 켜켜히 쌓여
말 못하는 암석이 되었다

암석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파편들을
차곡차곡 쌓아
수천만 사연들을 기록해두었다

이제는 그 암석의 파편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내어

지나간 부모의 시간과 한을 더듬어보자
사할린 한인의 후손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글을 사할린 한인들에게 바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할 글 읽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ый словарь подготовлен корееведами ИСАА МГУ

Коллекти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федры филологии стран ЮВА,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ИСАА МГУ (И.Л. Касаткина, Чон Ин Сун, А.В. Погадаева, К.В. Хазизова, Е.Т. Ан, С.Д. Бархатов) подготовлен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учебный словарь иероглифов. Издание осуществле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кадем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РК).



Словарь носит прежде всего учебный характер. Его задача — дать основные знания об иероглифах,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чтения газет, научной, специальной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которых используется смешанное письмо (когда некоторые слова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записываются иероглифическими знаками, а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 корейской азбукой). Кроме того, знание иероглифики существенно облегчает овладение лексикой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70%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ловарь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коло 3300 иероглифов, включая 1800 знаков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го минимума, утвержденного в 1972 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ля изучения в школах (иероглифический минимум был немного изменен в 2000 г.). Каждый иероглиф дан с его корейским и китайским чтениями и основными значениями, а также снабжен несколькими наиболее часто употребляемы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и. Также приводятся идиомы и фразеологизмы, содержащие заглавный иероглиф. Все иероглифы сгруппированы по ключам. Ключи даются со значением и чтением (если такое имеетс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языке).

Словарь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кореевед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 будет полезен студентам,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мся на изучении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н также будет интересен специалистам, владеющи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их работе, связанной с преподаванием, переводом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Источник: РАУК

Молодёжная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Будущее" (미래)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автономий городов и Бизнес-клуба «Вондон»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7 октября 2018 г. состоялось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шел 1-ы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а Форуме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Молодё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Будущее» (미래).



На Форум приехали делегации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а, Находки, Артема, Уссурийска, Большого камня, Партизанска. На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Форума обсуждались цели, задачи и планы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оект положения МОК, определены основны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обсуждались будущие проекты МОК, были выбраны члены Совет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избрали Виктора Мина.

По программе, в рамках «Мастер-класс», состоялась демонст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свадебной одежды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игры «Тухо», а такж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родного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Чильсон».

Татьяна Ким

Пяты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форум «Мост дружбы»

30 октября в Петербурге, в Доме журналиста, состоялся V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форум «Мост дружбы», ведущей темой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объедин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потенциалов двух стран.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ял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У Юнгын,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ектор СПбГУ Николай Кропачев и директо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СПбГУ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Ким Хэнтхэк. Модератором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упила директор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цент СПбГУ Инна Цой.

Открывая работу форума,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У Юнгын отметил, что в контексте а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граждан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ен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ина в Россию и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Госдумы.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стало поворотным моментом в укреплении связей на уровн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осподин посол. У Юнгы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роль СПбГУ и ДРПК в развитии горизонтальных —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Профессор Николай Кропачев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напомнил о важном событии в жизни города и всей страны — открытии памятника выдающейся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Пак Кённи в СПбГУ.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нами велась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творчества Пак Кённи в России: был переведен и издан первый том ее романа «Земл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вузов включено изучение твор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писательницы, проведено несколько научных семинаров о ее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е», — рассказал Николай Кропачев. — Мы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имя Пак Кённи стало знаком не только университетам, но и всем россиянам».

Завершая свою речь, ректор СПбГУ привел цитату философа Павла Флоренского: «Культура — это язык, объединяющий человечество». Ключом к эт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является понимание и уваж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Я верю, что объедин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потенциалов сделает наши страны ближе на пути к пониманию, пролегающему через «Мост Дружбы».

Профессор Ким Хэнтхэк подчеркнул значение давн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вязей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выстраивании нов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а также роль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В конце XIX века именно в этом городе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коре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миссия. 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это первое место в Европе, где началось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сообщил он.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форума он выделил, во-первых, рассмотрение текущего состоя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нтактов и тенденций их развития, во-вторых, поиск путей оптимизации этих связей и, наконец, организацию встреч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для их дальнейш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роме того, Ким Хэнтхэк представил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вященного взаимовосприятию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росы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Институтом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гук» и ВЦИОМ.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каждой стран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к информации о стране-партнере. Тем не менее, если для россиян Южная Коре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то у корейцев Россия вызывает ассоциации с прошлым —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коммунизмом, а такж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стереотипами (зима, Сибирь, водка и т. д.). Важно, что на образ Кореи напрямую влияют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оссии, — около 64 % респон-

дентов встречал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относятся к ним с симпатией. Профессор Ким Хэнтхэк в этой связи отметил, что сам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недостаточной степени оценивает роль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В целом же среди россиян доминирует позитивное восприятие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корейцы относятся к россиянам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ейтрально. Также ученый рассказал 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интересе к культуре, привел индексы восприятия, оптимизма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перспективные сфер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числе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им Хэнтхэк выдел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илени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нтактов, перевода раз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регулярную основу,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нципов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ерехода на новый этап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 уровень «искреннего отклика» и «сочувствия». Вскоре, в 2021 году, состоится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Мост Дружбы» должен дать стимул новым совместным культурным проектам, убежден спикер.

В ходе работы секций форума «Мост дружбы» ученые и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двух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ы, посвященные музыке, современному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медиарту, документалистике, музейному делу и спортив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Участие в трех заседаниях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унсткамеры, сеульского Арт-центра Пэк Намчжун и московского Электромuzeя, фонда «Новые имена», телеканала SBS, вузов Москвы и Петербурга. Модератором одной из секций выступила доцент СПбГУ, кореевед Анастасия Гурьева.

Также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ой книги «От Посъета до Арбата» авторства Ким Хэнтхэка, Ра Сындо и Ли Ынгёна.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150-лет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и в своем названии отражает путь корейцев от Посъета, пограничного города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до центральной улицы столицы уже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 Арбата.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гитары и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звестного музыканта Квон Чжонгу «Сказка ветра». Одна из композиций была исполнена вместе с петербургской певицей Натальей Нью, что стало воплощенным примером совме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узыкантов Кореи и России.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форума «Мост дружбы» — предоставить площадк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для встречи и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Форум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с 2014 года и уже проходил в Москве, Сеул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Мост дружбы» выступают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и Объединен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ПКЯРУ)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сточник: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а Сеуль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имчжан установлен новый рекорд

В центре Сеула тысячи людей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е Ханбок собрались вместе для заготовки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квашенных овощей кимчхи. Речь идёт о пятом Сеуль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имчжан, проходившем со 2 по 4 ноября. В этот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оказалось самым масштабным за всё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Его освещали не только отечественные, но и зарубежные СМИ, в том числе ABS и Bloomberg. 4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и попытались поставить новый рекорд для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В этот день для заготовки кимчхи собрались 3.500 человек. Предыдущий рекорд в 2.635 человек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2013 году. Кимчхи, изготовленные в период фестиваля, будут розд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общества.

Анджелина Джоли прибыла в РК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а Доброй воли УВКБ ООН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ая актриса Анджелина Джоли прибыла в РК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а Доброй воли Упра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комиссара ООН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UNHCR). 4 ноября она встретилась с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РК Пак Сан Ги.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ситуации с беженцами в стране и в мире. Анджелина Джоли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за усилия в разрешении ситуации с йеменскими беженцами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отметив важность обеспечения их защиты до момент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а также созда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проверки беженцев. Она также заявила, что УВКБ желает более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К в вопросе укрепления системы приёма и рассмотрения заявок о выдаче статуса беженцев. Посол доброй воли поблагодарила граждан РК за пожертвования в фонд УВКБ. Кроме того, он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усилия РК в деле создания режима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Фото: YONHAP News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ступило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на 2019 год

5 нояб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ступило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на 2019 финансовый год. 4 ноя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шили внести пункт о расширении детских выплат и субсидий в поддержку занятости молодежи в число пунктов проекта «семейного счастья».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ти пункты были одобрены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асходы бюджета п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статьям выросли на 22%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ынешним годом.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из чис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ящих и оппозиционных сил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спорных моментов в законопроектах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еформам и гражданским вопросам. Оппозиция намерена приложи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детальной проверки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4 ноября в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и, что бюдже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заиклен на налоговой теме, не отражая неудачи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повышению роста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В партии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сократить бюджетные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чрезмерной поддержкой КНДР. В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е будущее также выразили стремление сократить бюджет на 11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 статьям, связанным с особ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и рабочими местами.

В РК меняется отношение к браку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нижается стремление к заключению брака.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27 октября группой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блем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осящихся к браку, сокращается. Если в 2010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64,7%, то в 2014 году отметка опустилась до 56,8%, а в 2016 году до 51,9%. Особенно значительное сокращение наблюдается среди не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что усугубляет нынешнюю проблему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период с 2010 по 2016 год доля холостых мужчин, считающих брак необходимым, сократилась с 62,6% до 42,9%.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не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уменьшился с 46,8% до 31%.

(RKI)

Южная Корея назначила нового курато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значило нов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севе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м стал 56-летний Квон Гу Хун,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работал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инансовом конгломерате Goldman Sachs.

Напомним, что Комитет по севе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СЭС) напрямую подчиняется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у. Эта структура создана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Южной Кореи на еврази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вижению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и дву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КСЭС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менно с Россией, поэтому неофициально в Корею комитет часто называют "Комитетом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РФ".

До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КСЭС возглавлял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н Ен Гиль, который в свое время встреча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и имел хорошие связи в россий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ах. Однако в июле 2018 года Сон решил бороться за пост главы партии и покинул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СЭС. С тех пор мест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митета оставалось вакантным.

Комментируя назначение, секретар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Ен Чха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Квон Гу Хун с 2007 года работает в Goldman Sachs,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макроэкономике, обладает опытом работы в России и на Украине. "Уверен, что Квон принесет новые идеи, видение, сможет продолжить активизац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север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укрепит наши связи с регионом Евразии. Это позволит нашей экономике получи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для даль-

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 отметил Юн.

Про Квон Гу Хуна известно, что родился он в 1962 году в городе Чинчжу, что на самом юге Кореи,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енсан. Закончил факультет экономики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 затем получил ученую степень доктора философии по экономике (PhD) в Гарварде.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ботал в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финансовых компаниях, включая ABN AMRO, IMF, Goldman Sachs. В Москве возглавлял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фонда (IMF), последняя должность - старший экономист по Азиатскому региону в конгломерате Goldman Sachs. В 2011 году влиятельн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Тона Ильбо" включила Квон Гу Хуна в список "10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через 10 лет прославят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США запугали поехавших в КНДР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Власти США продолжают оказывать прямое давление на деловые круги Южной Кореи, угрожая им санкциями в случае попыток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Вслед за прямыми звонками сотрудников минфина США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анки, которые стали проявля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развитии связей с КНДР, на очереди оказались крупные местные конгломераты, котор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сольства США в Сеуле сказали "приготовиться к общению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фин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и очевидны расхождения в подходах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к КНДР. Если Вашингтон продолжае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наращивании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то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Юга подчерки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мены некоторых санкций, считая, что только путем взаимных уступок можно подтолкнуть КНДР к отказу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Отход союзника "от генеральной линии" сильно разозлил Вашингтон.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из США прозвучал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 адре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Сеул зачастили американские эмиссары, оказывая давление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Хотя в Сеуле пытались не выносить "сор из избы", но в итоге все стало настолько очевидно, что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признал расхождения в подходах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на днях, США продолжили свою тактику давления не только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но и не отказались от "целевых угроз" в адрес возмож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Ранее сотруд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ША обзвонили все ведущие банк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в той или иной форме заявили о подготовке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КНДР, и предупредил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блюде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против КНДР", намекая, что если банки ослушаются, то против них США могут ввести вторичные санкции. Очевидно было, что Вашингтон стал страховаться на тот счет, если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Юга проявит "чрезмерну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даст указание своим банкам начать проекты с КНДР.

Теперь же настала очередь корейских конгломератов. Дипломаты США, работающие в посольстве в Сеуле, вышли на руководство те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л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Пхеньян в сентябре, и сказали бизнесменам "быть готовыми, что им позвонят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ША". По словам дипломатов, американский минфин хотел бы услышать разъяснения по поводу сделанных в Пхеньяне обещаний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и что именно планируют дел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нгломераты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ун Чжэ Ина сопровождал большой деловой десант, куда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сех ведущих корпораций Кореи, включая Samsung, Hyundai, SK, LG

и другие.

Как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Чосон Ильбо", в компаниях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осольство США сказало им "ждать звонков из американского минфина". При этом было доведено, что разговоривать будут именно с выс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нгломера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сразу провели параллели с "прямыми звонками" в банки из минфина США и резонно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суть разговоров будет аналогичной: напоминания пр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блюдения санкций" и недвусмысленные де-факто угрозы "принять меры", если вдруг бизнесмены вздумают ослушаться.

Впрочем, как стал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известно, США передумали звонить. "Мы слышали,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почему-то отказались от своей идеи звонить нам... Но никаких пояснений не дали", - заявили в концерне Hyundai. То же самое подтвердили в Samsung, SK и LG.

По мнению политологов, все дело в состоявшемся недавно визите в Сеул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по КНДР Стивена Бигэна. За одну неделю он не поленился дважды приеха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ичем во второй визит настоял на том, чтобы на встрече с ним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фигуры из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ся главными сторонниками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имирения с КНДР. После отъезда Бигэна США немедленно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оздать совместный комитет, который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координацие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ов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эта структура выполнять будет функции надзора 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чрезмерную прыть" Сеула в отношении дружбы с Пхеньяном.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говорил Бигэн, но он явно довел, что США не нравятся подход Южной Кореи и что Сеулу пора "умерить пыл"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американский курс. Скорее всего новому комитету дали большие полномочия, которые удовлетворили Вашингтон и гарантировали, что США будут отслеживать 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все действия Юг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верное, в этой связи США и решили, что им нет больше надобности лично предупреждать компании напрямую", - пояснил источник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Он также признал, что "прямые звонки" из США "сильно удивили" местных банкиров и бизнесменов. "Это очень необычная практика. Не скрою,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это уязвило, что им пытаются говорить напрямую из Вашингтона что надо делать. Но видимо в США полагают, что пора переходить к более сильному давлению", - сказал собеседник.

Текс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коло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шествии и митинге в честь Дня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д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большая колонна проследовала от Воскресенского собора к историческому парку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Шествие, которое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ой русс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и звоном колоколов, возгл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и, а также братства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По улицам города они пронесли икону Казанской Божьей матер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праздника.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митинге ведущие напомнили собравшимся о событиях Смутного времени, о том, как воины ополчения, составленного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родов, 4 ноября 1612 года взяли штурмом Китай-город и изгнал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тервентов из Москвы. Эта победа послужила мощным импульсом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Сегодня особая дата в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Мы вспоминаем подвиг предков, несколько веков назад сохранивших целост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праздник всеобщего единения и сплоченности. Вместе мы в состоянии одолеть любого врага и в будущем, – поделился 16-летний участник праздника Вячеслав.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разднико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здравила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В своем обращении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 это дата, которая напоминает россиянам о важност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овековой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бывало не раз, когда раскол в обществе приводил к тяжелым и пагуб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Княжеские усобицы, Смутное время, развал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а затем 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все эти события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только си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пособ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вызовам и угрозам,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вать кризисы, отражать нападения врагов, – подчеркну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только в единстве – наша главная сила. Именно сообща наши предки сделали Россию великой державой, защитили её от агрессоров, добились выдающихся успех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лишь вместе мы сможем сохранить и преумножить это богатейшее наследие,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высить благополучие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её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и, конечн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кончании митинга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 исполнением танцев народов, живу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ся он русским хороводом «Плетень».

На Сахалине до 2021 года появятся более 10 новых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верне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В перечень будущих новостроек вошли: дет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ольниц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ри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 в селах Песчанское, Совхозное и Чистоводное, патоморфологический корпус в Холмске,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озводить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добрены заявки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й казны инфе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 Корсакове, корпусо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ликлиники №4 и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также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Ф.С. Анкудинова, поликлиник в Корсакове и Долинске.

– Потребность в увеличении площадей испытывают медиц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наибольшая численность жителей, но и потому, что специалисты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Пак. – Мы должны созда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пределен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требовалось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чтобы согласовать выделение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как на областном, так 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но теперь все готово в начале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Для работы в новых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по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300 врач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обеспечить за счет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которой ежегодно в островную область прибывает более 100 медработников. Такж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докторов нуж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на месте, для чего на Сахалин с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риезжаю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профессора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клиник. Напомним,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строены новый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хирургические корпуса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инфек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Ногликской ЦРБ, 17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амбулатории в Троицком и Арги-Паги. Ввод этих объектов позволил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ит исторический рекорд урожайности картофеля

Итоги работы аграрной отрасли за год подвели на празднике в честь Дня работник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3 ноября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редняя урожайность картофеля на островны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составила 244 центнера с гектара –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е всего клубней с каждого гектара собрала тройка предприятий –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320 центнеров), АО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272 центнера) и ООО КХ «Огоньки» (271 центнер). Лучшие показатели среди фермеров достигнуты в хозяйствах Тавказахова, Логинова и Архипова.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в среднем собрано 398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или тепличных выросло до 7 тысяч тонн. Лидеры в отрасл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 совхозы «Заречное», «Тепличный»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 концу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ичь рекорд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Продуктивность одной коровы на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и достигнет 6,3 тонны. Это станет лучшим результатом в пост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 числе передовиков по надоям –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совхозы «Заречно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Сегодня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дву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на 2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в селах Раздоль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ви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50 тысяч голов в селе Тарана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на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в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к концу года достигнет 12 тысяч тонн, что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двумя годами ранее.

–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находится на подъеме. У нас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создается бройлер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развивается тепличное земледел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яса и молока.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сами замечают результаты роста, когда приходят в магазины, на рынки и ярмарки,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зависели от завозимого на остро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чтобы на столах у них всегда была качественная и доступная по цене продукция от местных аграриев.

Скачок в развит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острове стал возможен,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обновлению парка техники и привлеч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село.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получили более 130 единиц машин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А 14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Анив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10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трасл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лучили подъемные.

Гран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оказываетс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кооперативам, фермерам, получателя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Владельцы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убсидией на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комбикорма и содержание коров.

Развивается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ассортимент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полнился 129 наименованиями. Открылась хлебопекарня в Вахрушеве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цех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одуктов из мя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годня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поздравили старейших работников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тили бухгалтера ООО ТФ «Сахалинский бекон-2» Ларису Смелтер, старшего экономиста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Полину Пьянову и начальника юридического отде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хлебокомбината Анжелу Оберемок.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дили телятницу совхоза «Заречное» Лилию Губареву.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она работает восемь лет, а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 со школьных лет.

Также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ручили члену фермер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Анатолию Косинову, коллективу совхо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трактористу цеха механизации эт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Николаю Белявину и ветеринарному врачу совхоза «Корсаковский» Алексею Зенину.

Лучших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звали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качестве»

Выставка товаров народ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стала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этап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который уже больше десяти ле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достижения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4 ноября посетители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ити Мол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свежую продукцию от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

изводителей.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ежегодного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в октябре и проходил в три этапа.

Сначала проводилась контрольная закупка продуктов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и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Затем проходили дегустационные советы, а итогом стала выставка лучших товаров.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опала мясная, рыбная, молочная и хлебобу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от 40 предприятий из 16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вошли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центров гигиены, эпидеми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Чтобы оценка была беспристрастной, каждый продукт лишился узнаваемой упаковки и получал цифровой код. Образцы оценивались по органолептическим свойствам: вкус, запах, консистенция, внешний вид. Эксперты,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дегустационных советах, прошли сенсорное обучение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 некоторых номинациях у нас по два победителя, так их продукция набрала рав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Ни один образец не был забракован. Н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всегда попадает продукция только те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не имеют обоснованных жалоб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претензий в ходе плановых проверо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беждают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 рассказала эксперт «Сахалинского качества» Елена Им.

По итогам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Хлеб украинский новый» было отдано продукции Холмского хлебокомбината. Лучшие батон нарезной и хлебец докторский пекут Долинский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хлебокомбинат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реди мясных изделий не нашлось равных колбасе полукопченой «Краковской»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фабрики и колбасе вареной «Чайной» от ООО «Колбасный цех «Сахалинский».

Как считает конкурсное жюри, лучшую ряженку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изводит крестьянское хозяйство «Мрия», а бифидок – поронайский молокозавод и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дукция посл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победила и в номинации «Масло сладко-сливочное несоленое». Вне конкуренции среди адыгейских сыров оказался образец от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Первые места эксперты также присудили икре лососевой баночной от рыболовецкого колхоза имени Котовского, консервам из скумбрии с добавлением масла и сельди тихоокеанской слабосоленой от ООО «Янтарное», кете слабосоленой подкопченной от ООО «Сахалинпищепром». Лучшие консервы из печени трески, по мнению судей, производит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ц».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использовать знак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ри рекламе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размещать его на упаковке и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100 лучших товаров России».

–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 это не только угощения для всех посетителей, н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покупателями, а также провести прямые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ой сети о прямых поставках продукции в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и за ее предел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егиона Инна Павленко. – На выставке присутствуют технологи и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мерческих служб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ответить на все вопросы об условиях хран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продукции. Каждый год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качестве» подписывают договоры о поставках товаров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а нов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ля те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авлять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Курилы и в северны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буд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половину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рефрижераторных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соблюдения в дороге необходимого температурного режима. Ведь от услови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хранения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репутаци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то, какой отклик продукция получает у покуп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ередко возвращаются с наградами с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х ярмарок. Так, на выставке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олучила продукция «Красногорской заимки».

–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ивезли на суд любим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купателя новинки. Только неделю назад в наши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начали продавать сыр сулугуни. А к новому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порадовать жителей линейей сыров, подкопченных на натуральных опилках. Срок реализации сулугуни – всего 10 суток,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туральный, полезный продукт, – рас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вхоза «Заречное» и АО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Валентина Баранска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з Хабаровска получили еще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 – ООО «Ханаан»,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ая фабрика «Золотой теленок-2», АО «КЗПИН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 씨와 고 여운택 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소송이 있는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는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여 만에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

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체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 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통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 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모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얻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 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대개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 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수백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깃뺏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일본 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 몽당연필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 한일제일시민연대 · KIN지구촌동포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제공)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선수권 대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팀장과 강사들을 위한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대회 규칙 설명과 경쟁력 있는 시도에 대한 평가의 특성을 브리핑하는 자리에 сахалин주 보충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분야의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초청된다. 조직위원회는 브리핑의 일환으로 대회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대회 과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수권 대회 진행은 сахалин주 정부의 장려금 지원으로 이뤄졌다고 <진취적 교육> 센터 측이 전했다.

Второй областной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посвятят сахалинским ТОРАм и нефте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 декабря в островном крае пройдет второй областной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учебный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 региональ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сахалинских отборочных этапов та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как "РобоФест" и "Всероссийская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ая олимпиада".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провели первый чемпионат, который вызвал интерес не только у школьник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привлек участников из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Чемпионат собрал более 100 начинающих робототех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емного изменили регламенты и правила прошлого года, — рассказывает директор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Илона Волошина.

Чемпионат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под общей темати-

кой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соревнований школьники с 1 по 11 класс сойдутс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трем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зм (младшая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4 классы);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средняя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5-8 классы);

нефтегазо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таршая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9-11 классы).

Преамбула и задания для кажд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связаны с приоритет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ТОР "Южная" и развитие нефте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Колоссальный опыт, который мы получили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участии в федеральных этапах, работе в судейских коллегиях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 те необходимые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мы уверены, позволят нам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добавляет Виктор Попов, федеральный судья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Перед чемпионатом проведут брифинги для тренеров и наставников команд. К участию в брифингах по разъяснению правил состязаний, особенностей оценки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х попыток приглашаются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дворовых и семейных команд. В рамках брифингов оргкомитет чемпионат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ит участн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пытаться выполнить конкурсные задания.

Проведение чемпионата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 편집부)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